사이언스 코리아-부산

제3회 부산과학축제

가자, 즐기며 배우는 신나는 과학놀이터로

제3회 부산과학축제가 24일 팡파르를 울린다.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펼쳐지는 부산과학축제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과학, 체험해 볼 수 있어 재미있는 과학'을 모토로 과학이 재미있는 체험과 놀이라는 점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올해 시작되는 민간과학부흥운동이자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알리는 '사이언스 코리아'와 발맞춰 부산이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거점임을 알리기 위해 임성규 과학기술부 차관과 부산과학기술협력원 이사회가 공동으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사이언스 코리아-부산'을 선포하는 뜻깊은 행사도 갖는다.

국제신문과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해 부산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과학관련 사회단체 등 100여개에 이르는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과학축제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알아본다.



지난해 부산과학축제의 과학탐구 체험마당에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짚물공예를 체험하고 있다.

벡스코에 35개 과학체험부스 설치
부산지역 생명의료산업 미래 소개
생활과학 글짓기대회·강연회 개최

△과학탐구체험부스=과학축제 기간 동안 1층 전시장에는 35개의 과학탐구체험부스가 설치된다. 부산시과학교육원 주도로 1개 부스당 지도교사 1명과 학생 10명이 배정돼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흥미진진한 실험을 보여준다. 체험부스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축제기간 내내 가장 인기있는 곳이다.

신기한 화학반응으로 서커스단의 불쇼를 연상시키는 과학매직쇼도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부산해사고와 부산고 지도교사 2명과 화학반 학생 12명이 '불쇼-이'라는 주제로 매일 3회씩 공연을 한다. 1회 공연 시간은 20분 정도.

LG청소년과학관에서도 미래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장치 등 다양한 과학체험 기기를 선보인다.

△최첨단 암 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신기술 전시=미래신산업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장군에 들어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중심으로 부산의 생명의료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특별관이다.

원자력의학원에서는 원자력으로 어떻게 암을 치료하고 산업적으로 응용하는지를 여러가지 축소모형을 통해 소개한다. 또 부산의 대표적 제약회사인 (주)바이넥스는 폐암 및 대장암 분야의 자가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등 새로운 암치료제 연구법을 알려준다.

이와함께 암 분자치료 기법을 연구하는 동아대 기초의과학연구센터, 개인별 맞춤신약 개발을 추진중인 인제대 약물대사유전체 중점연구센터, DNA칩을 개발하고 있는 부산지놈센터 및 무한한 해양생물자원으로 첨단 제품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신라대의 마린바이오산업화 지원센터, 부산바이오기업지원센터에서 각각 신기술을 소개하고 현미경과 DNA 이중나선 등 생명과학관련 각종 기자재를 학생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지역우수연구센터 전시관=산학연 컨소시엄과 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지역우수연구센터(RRC) 등이 22개의 부스를 만들어 기술개발 성과물과 초전도 현상, 축구장보다 큰 선박의 운행원리, 플라스틱을 이용한 정보소재의 제작방법 등을 전시 또는 설명한다.

△열린과학교실, 영재학습관, 영화특수효과 가상체험=부산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단, 부산과학고, 경성대CT센터가 참여해 물리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유체마술과 화학의 원리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실험 등을 보여준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수효과를 만들때 사용되는 영상합성장비인 크로마키시스템을 통해 영화속 주인공이 된 듯한 가상체험을 할 수도 있다.

△생활과학 글짓기 대회=동의대가 주관하는 생활과학 글짓기 대회는 올해부터 대상을 부산지역에서 전국 규모로 확대했다. 중고생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세부주제는 당일 발표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6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국제신문사장상 부산시장상 부산시교육감상 등 14명에게 시상한다.

△과학자 초청 강연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응용센터의 김종수 박사가 벡스코 2층 소전시장에서 '우주개발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청소년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최영지기자 jadore@kookje.co.kr

◇ 부산과학축제 행사내용

구 분	시 간	내 용	장 소
개 막 식	4월 24일(토) 오전10시30분	과학의 날 기념식·부산과학기술상 시상	2층 소전시장
개 막 초청행사	4월 24일(토) 오전11시30분~낮12시	보현산펫 노래자랑	야외광장
과학축전	4월 24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25일(일) 오전10시~오후6시	과학탕구처험마당 (체험부스운영 과학매직쇼)	1층전시장
		열린과학교실 경합특수효과 가상체험 영재학관 버그박사 체험교실	
		산학연 기술개발품 전시관 바이오신기술 전시관	
		생명공학 연구 세포치료제 개발	
		청정기 보청전시 로봇 이족보행로봇 전시	
		버그로봇 이족보행로봇 전시	
글 짓 기 대 회	4월 24일(토) 오후 2시~오후 5시	생활속 과학 글짓기 대회	야외광장
세 미 나	4월 23일(금) 오후 3시~오후 5시30분	지역과학혁신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
강 연 회	4월 24일(토) 오후 2시~오후 3시30분	과학자 초청 강연회	2층 소전시장
별 축 제	5월 22일(토) 오후 2시~밤 11시	청계시민 전시회 고령로맷 발시 초청장면, 불꽃쇼 관람	크린산 청소년 수련원

지역과학기술혁신 세미나도 열어

23일 국제문화센터 대강당

부산과학기술협력원이 주관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세미나'가 오는 23일 오후 3시 국제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본사가 주최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문화숙(문화병원 원장) 박사가 진행하는 주제발표에서는 김용환 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심의관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이경훈 부산시 경제진흥국장이 '부산시의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이공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이 '공공연구기관과 지역과학혁신'을 제시한다.

이어 윤수인 전 부산대총장이 진행하는 토론에는 하경자(부산대 교수) 김준연(동아대 교수) 신병철(동의대 교수) 문정오(부산과학고 교장) 최범영(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손동운(국제신문 생활과학부장)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지역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역 대학과 여성 과학기술인, 산학연 연계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 이란

대규모 과학문화확산 운동인 '사이언스 코리아'운동이 21일부터 펼쳐진다. '사이언스 코리아운동'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것으로 '전 국민과학화 운동' '제2의 과학기술입국'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과학문화운동이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추진체계는 공동의장, 공동대표단, 고문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운동을 대표할 공동의장으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운찬 서울대 총장, 윤송이 SK텔레콤 상무 등 3인이 추대됐고, 사회각계의 신망이 높고 존경을 받는 인사들로 공동대표단(20여명)을 구성한다.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담당할 사무국은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경제계, 학계, 과학기술계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기업 정부유관기관 사회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과 연계해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무국에서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과학실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 1분 동안 뜀뛰기를 할 때 계측되는 지진계 변화실험인 인공지진 실험 등 큰 이벤트를 만들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과학소설이나 과학만화, 과학시나리오 등을 통해 과학이라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시민천문대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우주과학기술을 즐기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02년 제1회 부산과학축제 때 '과학도시 부산' 선포식을 가졌다. 당시 국제신문과 부산시는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선포식을 가졌다.

국제신문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던 지난 2000년 3월부터 국내 최초의 대중과학강연회인 '과학자와의 만남'을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며 2002년부터 부산시와 공동으로 부산과학축제와 부산과학기술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이 축적돼 지난달 31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대 동아대 동의대, 지역산업계 등 지역사회와 학계가 공동으로 부산과학기술협력원을 설립했으며 앞으로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에 적극 동참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과학기술중심의 사회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지기자

과학입국 범국민 문화운동
각계 의견수렴 새사업 발굴
부산에선 2002년부터 움직임 활발

